

소녀시대 예비멤버였던 그녀가 전기전자공학부를 선택한 이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장하진 학생 인터뷰..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Q 장하진 학생은 겁그림 소녀시대 예비멤버로 대비를 눈앞에 앞두고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대의 선망 대상인 '스타의 꿈'을 접고 돌연 공부의 길로 뛰어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어릴때부터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저는 친언니의 권유로 제7회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에 우연히 참가하게 되었고 5천명이 넘는 참가선수들을 제치고 '외모짱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후 SM기획사에 캐스팅이 되었고, 부모님께 학생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을 약속한 후 연습생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화려한 스타의 꿈을 안고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연습생으로써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안였습니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춤과 노래 그리고 중국어와 연기연습 등으로 매일 5~6시간 연습에 매달려야 했고 휴일 또한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연습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순간에도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일산)에서 연습실(압구정동)까지 지하철로 왕복 3~4시간이 걸려, 그때 수업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노력에 결과로 실인적인 스케줄과 격렬한 연습을 하면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시절, 학교 친구들은 외고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친언니를 따라 외고에 진학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외고 진학 준비를 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던 열등감이 앞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실패하였습니다. 너무 적게 공부하고 너무 큰 결실을 바란 거라 당연한 결과인거 같습니다.

처음 실패를 경험한 그 후로 전 한발 물러서기 보다는 죽기를 각오하고 한발을 더 내딛고 싶었고 '한번 죽도록 공부해 보고 싶다'란 생각이 들어 공부만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Q 대행기획사 연습생 시절에 빡빡한 연습 스케줄로 중학교 3년 동안 공부에 열중하기 어려웠을 텐데, 탈퇴 후 전교 1등에 학생회장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카이스트에 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공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원하던 외고입학 시험에서 떨어져 한번 실패를 맞본 뒤 그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연예인 보다는 공부가 계속하고 싶어졌고 배움을 통해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싶어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무렵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학교 시절에도 상위권 성적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 매일 도서관을 다니며 복습하기 시작하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1학기 공부를 먼저 예습하였습니다. 겨울방학이라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철저히 세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주의에 많은 학생들을 보면 공교육보다 오히려 사교육에 많이 집착을 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마치 사교육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해 그에 맞는 학습 계획을 세워 '자기만의 학습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흔히들 원하는 성적이 나오질 않을 경우 실망해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시험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한 후 공부시간을 더 늘려 다시 재도전을 하였습니다. 공부는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악순환에 빠져 두려워 말고 '노력' 그리고 또 '노력' 하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Q 장하진 학생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에 재학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을 전기전자공학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기공학은 처음 고등학교때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리학 속의 전기는 복잡한 원리 및 계산과정이 숨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원리를 분석하고 계산을 하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고 어느덧 수치적인 계산과정을 일일이 분석하지 않아도 원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2학년 전공을 선택할 시점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처음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뇌가 복잡하게 얽힌 신체를 어떻게 통제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지도 뇌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되어있는지 공부하고 싶었고 그 연결 분야로 바이오공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뇌의 신호가 전기공학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면서 저는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어떻게 전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기전자 공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싶어졌습니다. 무엇이 신경세포의 전기를 미세하게 조절하는지 신경세포 간의 전기신호 전달 효율은 어떻게 제어되는지, 어떻게 하면 가능한 많은 신경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대학 전기전자공학에는 뇌영역을 전기전자공학 측면에서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이 계시고 그 외에도 전기전자공학

이라는 학문아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100여명으로 많은 학문을 배울 수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바이오와 전기라는 다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여성공학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인생의 좌우명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 좌우명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입니다. 자신의 꿈꾸는 인생의 목표는 항상 부단한 노력 끝에 목표를 이뤄낼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항상 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노력'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아무리 커다란 문도 중요한 열쇠가 없으면 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전부이기 때문이다"(에머슨)의 말처럼 저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저를 믿고 다른 외부적인 여건, 시간 등을 핑계로 게을리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신념이 소녀시대 예비멤버로써 꿈을 키울 때에도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뻑뻑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학교공부에도 최선을 다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큰 결심을 했을 때에도 주의 지인들의 우려와 달리, 저 자신을 믿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목표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공부를 향한 '노력'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제 스스로 자신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스타라는 화려한 꿈을 접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공학도이자 꿈이 많은 21살 여자입니다.

여자로써 전기공학도에 첫발을 내딛어서 해보고 싶은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새로운 연구분야에 참여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고, 또 그 연구한 내용을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여자로써 이 분야에서 당당히 우뚝 서기를 보고 여자 공학도를 꿈꾸는 "여자공학도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채워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